환율변동이 수입에 미치는 효과

원화환율이 10%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입단가는 5%가량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세계 수입시장에서 국내 수입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내 수입업자의 가격협상력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글 오영균 ykoh@mail.lgeri.co.kr

일반적으로 수출가격은 원화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율변화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가격 조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입가격의 경우 원화환율이 변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소국이기 때문에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못하며, 해외시장에서 결정된 수입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및 대외교역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원화환율 변화가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의 변화가 달러표시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환율변화가 달러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기에는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가격 결정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상품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해외기업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수입액은 1천5백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1조2천4백억 달러), 일본(3천7백억 달러), 중국(2천3백억 달러) 등에 비하면 작지만, 세계 13대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더 이상 소규모 개방국가라고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입규모가 커지자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기업들간에 경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개방의 결과로 원자재나 자본재 뿐만이 아니라 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시장에서 해외기업과 국내기업들간에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입상품 가격이 단지 외부에서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입업자의 협상력과 국내경기, 환율변동 등 국내 경제

원화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화공품(-6.28%), 정보통신기기(-5.43%), 철강재(-5.10%), 섬유사(-4.95%), 가전제품(-4.49%), 기계류(-1.92%) 순으로 수입단가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굳이 한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외 수출업자가 국가별로 시장별로 가격차별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 지역별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고, 관세, 거래비용 등 무역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해외 수출기업은 한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를 조정해 왔을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가격 결정요인

원화환율 변화시 해외 수출업자가 국내에 수출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정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수입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다. 원화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이때 해당상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 감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또는 가격 인하를 통해 수요 감소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원화환율 변화에 따라 해외기업이 단가를 조정하는 정도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수입품에 대한 국내시장 수요가 가격에 별로 탄력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환율변화에 따라 해외 수출기업이 달러표시 수출단가를 조정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해외기업이 국내에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데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국내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입품일수록 해외 수출업자가 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원화환율뿐만이 아니라 엔화환율도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 변수이다. 국내 수입품의 22%(2000년도 기준)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엔화환율의 변동에 따른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조정 전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엔화환율이 상승하면 일본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개선되므로 수출단가 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수입단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달러표시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화환율과 엔화환율 그리고 국내경기를 고려함으로써 환율과 수입단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원화환율 변동의 영향력

1988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달러표시 수입단가 자료를 이용해 원화환율 변동이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원화환율이 10%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입단가는 5%가량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소비재(-6.71%), 원자재(-6.50%), 자본재(-1.33%) 순으로 수입단가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는 화공품(-6.28%), 정보통신기기(-5.43%), 철강재(-5.10%), 섬유사(-4.95%), 가전제품(-4.49%), 기계류(-1.92%) 순으로 원화환율 10% 상승시 수입단가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폭이 큰 이유는 소비재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국내시장에서 해외기업간 또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쟁이 심

<표 1> 원화환율, 엔화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단가의 변화

(단위 : %)

수입품목	수입비중	원화환율 10%상승시	엔화환율 10% 상승시
수입단가지수	-	-5.02***	-0.31
원자재	49.2	-6.50***	2.25***
자본재	40.8	-1.33***	-5.44***
소비재	10.0	-6.71***	0.74
반도체	12.3	2.48***	-1.35
기계류	11.5	-1.92***	-6.47***
정보통신기기	7.7	-5.43***	-5.12***
화공품	7.4	-6.28***	-2.07***
철강재	3.7	-5.10***	1.94
가전제품	1.0	-4.49***	-8.68***
섬유사	0.9	-4.95***	0.70

주 : 1. 수입단가의 설명변수로 원화환율, 엔화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최소자승방법(DOLS)으로 장기관계를 추정한 결과임.
2. 추정기간은 1988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임.
3. 수입비중은 2000년도 수입액 대비 각 품목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4.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성 있는 추정결과임을 표시함.

엔화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가전제품(-8.68%), 기계류(-6.47%), 정보통신기기(-5.12%), 화공품(-2.07%) 순으로 수입단가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환율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국내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해외 수출기업이 큰 폭으로 수출단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원유, 광물, 경공업 원료 등으로 구성된 원자재의 경우 수입품을 국내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재 수입단가가 원유가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가 19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국제유가는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동기간 원화환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마치 원화환율의 변화가 원자재 수입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국제원유 가격과 광물가격이 세계시장의 수급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단가 하락 폭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자본재의 경우 원화환율이 10% 상승할 때 달러표시 수입단가가 1.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재의 수입단가 하락이 크지 않았던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 대체상품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수입품목별 상위 3대 수입국과 수입비중

(단위 : %)

품 목	수입비중	1위국	2위국	3위국
반도체	12.3	미국(36.0)	일본(21.9)	대만(9.6)
기계류	11.5	일본(39.1)	미국(28.1)	독일(9.3)
화공품	7.4	일본(19.8)	미국(15.0)	인니(9.6)
철강금속	3.7	일본(31.6)	중국(10.8)	미국(9.7)
가전제품	1.0	일본(37.7)	중국(22.6)	미국(12.5)
섬유사	0.9	중국(42.6)	일본(10.9)	이탈리아(6.6)

자료 : KOTIS, 2000년도 기준임.

엔화환율 변동의 영향력

엔화환율의 경우는 원화환율과 달리 수입품목에 따라 달러표시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크기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엔화환율이 10% 상승할 때 국내 수입단가는 0.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별로는 자본재(-5.44%)의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소비재(0.74%), 원자재(2.25%)의 수입단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원화환율에 비해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엔화환율이 10% 상승할 때 가전제품(-8.68%), 기계류(-6.47%), 정보통신기기(-5.12%), 화공품(-2.07%) 순으로 수입단가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화환율의 변동이 소비재, 섬유사, 반도체, 철강재의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기계류, 화공품 등의 수입단가가 엔화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이들 품목에 대한 최대 수입 대상국이 일본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국내상품과의 경쟁관계가 치열하기 때문에 엔화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일본 수출기업은 큰 폭으로 수출단가를 떨어뜨려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을 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강재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수입원자재 투입 비중이 높은 철강재의 특성상 일본기업들이 엔화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산성 개선 폭이 크지 않아 수출단가 인하 폭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수입물량 탄력성

환율변동은 수입단가를 변동시키므로 간접적으로는 수입물량 변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수입단가가 10% 상승할 경우 용도별로는 자본재(-13.18%), 원자재(-3.26%)는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소비재(10.07%)는 오히려 수입물량이 증가한

국내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향상될수록 수입업자의 가격협상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품의 국내가격 상승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표 3> 수입단가 변동에 따른 수입물량의 변화

(단위 : %)

수입품목	수입단가 10% 상승시
수입물량지수	-2.94***
원자재	-3.46***
자본재	-13.18***
소비재	10.07***
반도체	-8.25***
기계류	-3.77
정보통신기기	-21.10***
화공품	0.68
철강재	3.73*
가전제품	-8.76***
섬유사	-2.37***

주 : 1. 수입물량의 설명변수로 원화환율, 엔화환율, 수입단가 , 국내경기 동행지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최소자승방법(DOLS)으로 장기관계를 추정한 결과임.
2.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성 있는 추정결과임을 표시함.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살펴보면 수입단가가 10% 상승할 경우 정보통신기기(-21.10%), 가전제품(-8.76%), 반도체(-8.25%), 섬유사(-2.37%)는 수입물량이 감소되고, 철강재(3.73%)는 오히려 수입물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품 품질의 변화와 소비자의 기호, 소득수준 등의 변화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재 수입의 경우 올들어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1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승용차(1.1억불, 전년대비 +66.2%), 화장품(2.1억불, +39.6%), 의류(5.7억불, +26.9%), 운동용구(1.2억불, +11.5%) 등 기호품과 사치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반면 육류(3.7억불, -33.3%)와 휴대용 전화기(0.5억불, -23.1%), 곡물류(8.6억불, -5.8%) 등의 수입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재 수입 구성품목이 수입단가 변화에 민감한 품목과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수준 등에 민감한 품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후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수입액에 대한 영향

원화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달러표시 수입단가 및 수입물량의 변화를 통해 수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용도별로는 소비재(-9.93%), 자본재(-9.78%), 원자재(-7.06%) 순으로, 품목별로는 기계류(-17.21%), 철강재(-13.48%), 가전제품(-12.13%), 정보통신기기(-6.09%), 화공품(-5.89%), 섬유사(-4.45%) 순으로 수입액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반도체(4.31%)의 경우는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원화환율 변동이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수입품목	원화환율 10% 상승의 효과
수입	-8.31
원자재	-7.06
자본재	-9.78
소비재	-9.93
반도체	4.31
기계류	-17.21
정보통신기기	-6.09
화공품	-5.89
철강재	-13.48
가전제품	-12.13
섬유사	-4.45

주 : 원화환율 상승이 수입액에 미치는 효과는 수입단가 변동효과와 수입물량 변동효과를 동시에 감안한 것임.

수입가격 전가도의 시사점

원화환율과 엔화환율이 상승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가격이 환율 상승분 보다는 작게 상승할 것임을 시사한다.

환율상승에 따라 해외기업들이 수출단가를 인하 조정하는 정도는 일차적으로 국내 수입업자들의 가격협상력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한 가격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수입품에 대한 국내 대체상품이 충분히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경쟁상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이 우수한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국내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환율상승시 수입단가 하락 폭을 늘리고 그만큼 환율변화가 국내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